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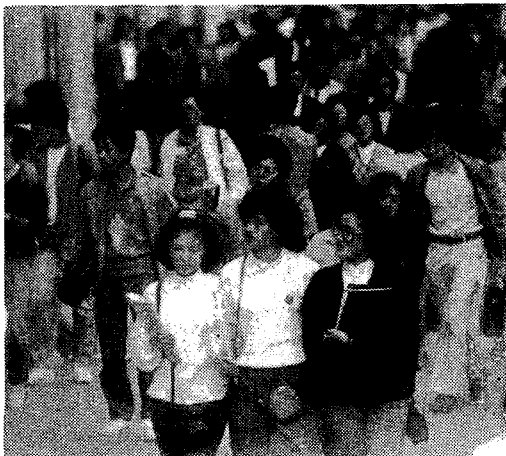


自然環境과 소비자保護



金 祚 漢

〈全國 주부교실中央會 사무처장〉



□ 선진국민의 자격

국토의 평균 높이가 해변보다도 낮은 네델란드에는 해변을 따라 높은 모래언덕에 이어져 있다.

말로는 모래언덕(砂丘)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모래언덕이 아니라 아름답리 나무들이 보기 좋게 무성해서 마치 태고적 원시림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래언덕의 울창한 숲속에는 들성들성 평탄한 분지가 마련되어 있고 자동차가 간신히 드나들 수 있는 오솔길이 나 있으며, 그 어간에 띄엄 띄엄 산장과 같은 통나무 집들이 들어서 있다.

허술하게 보이는 이 통나무 집들에는 이 숲속의 동식물의 생태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 사진, 모형 식물표본들이 전시되어 있고 참고도서도 갖추어 놓고 있어서 생생한 교육의 현장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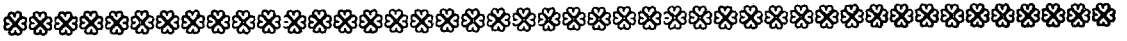
유치원이나 국민학교의 어린이들이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교재들로서 자연의 생태계는 물론 자연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구체적이고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자연을 보호하자는 구호도 없고 표지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네델란드의 자연환경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모든 시민들이 스스로 자연환경을 아끼고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한가지 만으로 이렇듯 아름다운 환경을 이룩할 수 있었고, 또 이를 잘 보전하고 있음은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순리에 따라 잘 가꾸고 다스리려는 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될 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내 주



변 환경을 깨끗이 가꾸고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선진국민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 깨끗한 환경에의 열망

산업의 발달과 함께 우리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부터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문제가 하나의 새로운 사회적문제로 심각하게 등장되었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우리의 주변환경은 오염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자동차의 매연으로 공기가 더럽혀지고,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강물을 오염시켜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현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따름이다.

최근 한강물이 맑아지기 시작했고, 서해안 남해안의 일부 바다가 깨끗하게 회복세를 보인다는 반가운 뉴스를 접하면서도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하나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제5공화국 수립이후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헌법에 소비자보호조항을 명문화하면서 우리 나라의 소비자운동이 전례없이 활기를 띠고 있음에 편승하여 지난해에는 소비자단체들이 「깨끗한 환경보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소비자들 스스로 힘과 지혜를 모아 더럽혀진 환경, 더럽혀지고 있는 자연을 깨끗이 가꾸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主犯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사회에 고발하고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각성을 촉구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계몽 캠페인 등을 통해서 깨끗한 환경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데 뜻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때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깨끗한 환경보전이란 국민적 노력을 소비자운동의 하나로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은 펍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다.

어느 한사람도 외면해서는 안될 우리들 모두의 생활과 직결되는 과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재삼 강조하고 싶다.

□ 금수강산을 되찾는 길

제아무리 경제적으로 고도의 성장을 이룩한다 하더라도 하늘과 땅을 거역하고 인간이 행복한 사회건설을 기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절실히 생각해야 할것 같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자연의 생태계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그리고 너무나 철저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순



환질서가 확립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소비자 운동으로 내세운 「깨끗한 환경보전」이란 구호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힘이 없는 것인지도 모를 만큼 우리의 환경은 정신없이 파괴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델란드와 같은 조건이 나쁜 나라에서의 예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할 것인가?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자부해온 우리의 푸른 하늘과 옥도를 네델란드와 비교해서 과연 어떤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네델란드보다 우리의 자연환경이 나쁘다고 한다면 그것은 두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자연환경을 생각하고 가꾸어왔느냐 하는 차이일 따름이



지 천부적으로 물려받은 조건이 애초부터 우리가 못한 때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주변환경을 깨끗이 다스리는 길이 되는 것인지를 각자가 깊이 인식하고 책임있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노력없이 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바야흐로 포기하고 주저하던 소극적인 소비자는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의무를 다하는 적극적인 소비자로 변모하고 있으며, 외면하거나 귀찮아 하던 기업은 소비자에 대한 서어비스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환경보전문제에서도 밝은 내일을 전망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소비자단체의 육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각급 직장이나 사회단체들도 사회정화, 환경정화를 위한 지도계몽에 역할을 다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 소비자 한사람 한사람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소비자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사람 한사람의 힘은 약하지만, 그것이 모이면 태산도 움직일 수 있는 무서운 힘이 샘솟는다.

옛 속담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맑은 냇물을 흐린다고 했듯이 우리의 아름다운 환경을 흐리는 한마리의 미꾸라지가 과연 나는 아닌가 自省해보자.

예로부터 산 좋고 물 좋은 우리 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어느 곳에서든 맑은 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고, 어디를 가도 깨끗한 공기에 새소리, 바람

소리, 나무잎 소리 들리는 쾌적한 생활환경이 그림자만, 지금 우리의 현실과 생활주변은 과연 어떤가?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공해, 폐기물오염, 흡연과 건강문제 등 환경과 소비생활 전반에 걸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 어느쪽 길을 택할 것이나?

환경을 더럽히는 것도 다른 사람 아닌 소비자이고, 그 환경속에서 사는 사람도 다른 사람 아닌 소비자이고, 나 자신임을 깨닫고 누구의 탓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과 내 생활주변부터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생활환경을 깨끗이 해 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나무터 앞장서서 우리 환경을 내 힘으로 가꾸어 나가는 노력이 우선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와 내 가정의 일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알뜰히 가꾸어 나가는 정신과 노력이 절실하게 요망된다.

세계적으로 위대한 과학자의 한 사람이며 비타민C를 발명하여 노벨상을 받은 알버트 박사가 「문제는 인간이 어느쪽 길을 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연을 보호하여 광명한 미래를 기약할 것이나? 아니면 자연환경을 계속 파괴함으로써 자멸의 길을 택할 것이나? 현재 우리는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 갈파한 말을 읊미하면서…….

**환경의식 드높일 때
나라힘도 강해진다**